

베이비붐 세대의 부상,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연구진 조 경 옥 연구위원 wook7231@jd.re.kr

연구진 이 중 섭 부연구위원 welfare73@jd.re.kr

연구진 박 신 규 부연구위원 ko892ws@jd.re.kr

Chapter 1 |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Chapter 2 | 전라북도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특성

Chapter 3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대응 방향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4월 11일 vol.35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베이비붐 세대의 부상,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Chapter 1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 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와 특성 3
- 2. 베이비붐 세대를 정책적으로 주목해야하는 이유 4

Chapter 2 전라북도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특성

- 1. 베이비붐 세대의 도시집중 : 농촌의 피해화 6
- 2. 높은 학력수준과 자녀부양 부담 가중 7
- 3. 베이비붐 세대의 두얼굴, 경제적 풍요와 빈곤 7
- 4. 여가문화 활동과 자기투자에 적극적 9
- 5. 성별 · 지역간 노후준비 양극화 10

Chapter 3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대응 방향

- 1.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정책결합 11
- 2. 농촌사회 안전망 확충 12
- 3.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전수 위한 사업확대 12
- 4. 여가인프라와 서비스 향상 : 여가와 교육, 복지의 연계 13
- 5.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농촌과 여성노인 중점지원 14

Chapter 1

베이비붐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1. 베이비붐 세대 규모와 특성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¹⁾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1955년)에서부터 산아제한정책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1963년)까지의 9년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함

▶ 본 세대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713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비율로는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임

-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만 47세에서 55세의 9개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령층은 6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고 각 연령층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규모는 큰 차이 없이 반반을 차지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만형 격인 1955년생들이 2010년에 기업의 일반적 정년연령인 만 55세에 도달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 중 임금근로자인 311만 명이 9년(2010~18)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추정 됨

▶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독특한 생애과정

을 경험한 집단으로 이들의 과거 성장과정은 다른 세대와 다른 특징을 보이며, 현재의 경제적 상황도 내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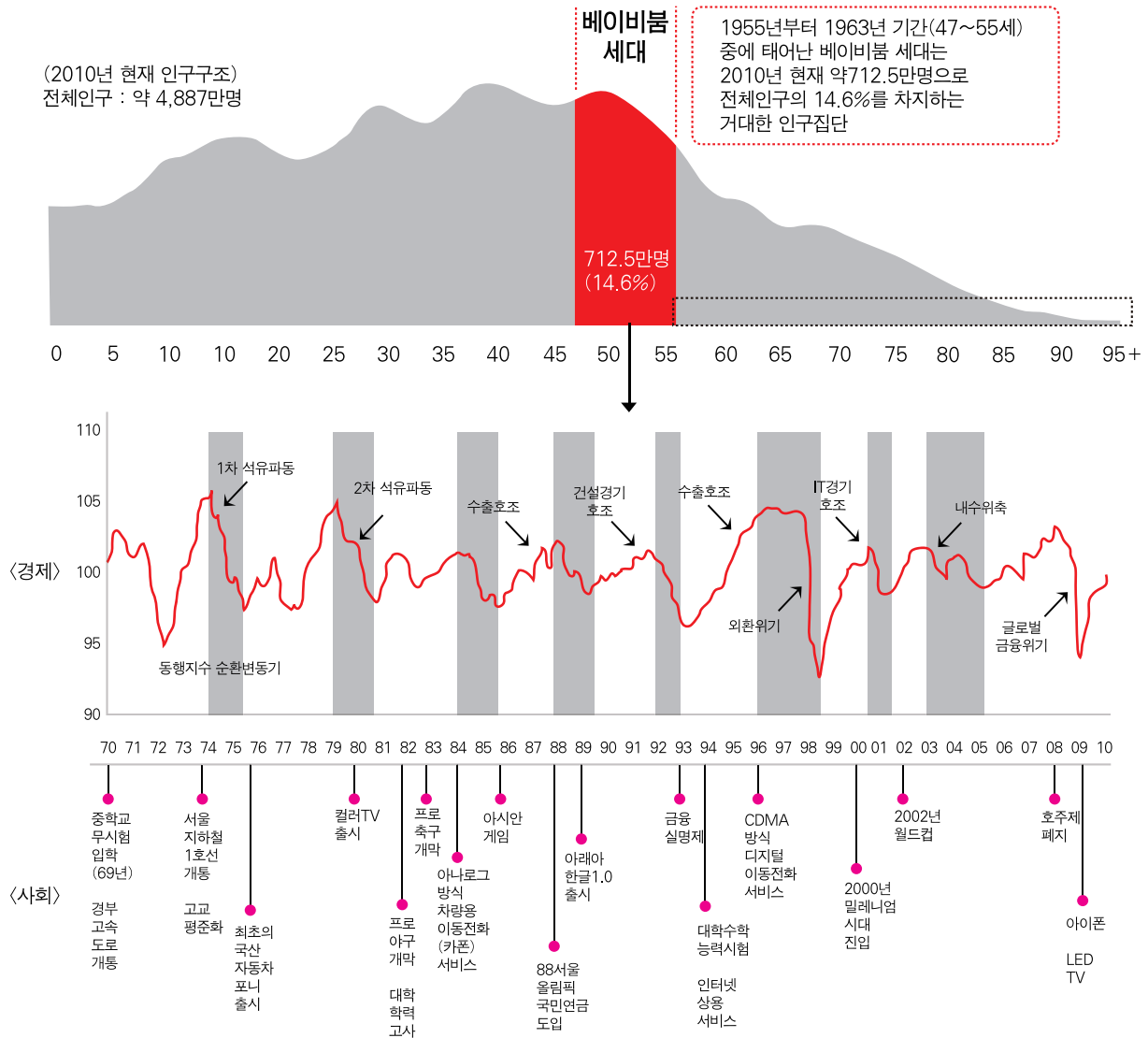
- 한국전쟁 직후 출산장려정책에 의해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에 태어나 1962년부터 시작된 국가 국가경제개발의 주역으로서 국민소득 66달러(1955년)를 2만 달러(2007)로 상승시켜 경제성장 신화를 창조하였으며, 빈곤한 농업기반 사회를 지식정보화의 후기산업사회로 이행시킨 주력군임

-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과 희생적 역할을 해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평균수명 연장과 조기은퇴로 인해 길어진 은퇴 후의 삶은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유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의 노인층에 비해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의식을 보유하고 있고, 노년기를 자기실현 기회 또는 제 3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등 과거노인층과 큰 대조를 보임

1) 전후 다산(多産)시기의 출생자를 의미하는 베이비붐 현상은 비단 한국의 사례가 아닌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전쟁을 겪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국의 베이비붐세대(1946~64)는 77,98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6.0%를 일본의 베이비붐세대(1947~49)는 678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3% 수준임

〈그림 1〉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일대기와 사회변화상



2. 베이비붐 세대를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동력감소, 재정건전성 악화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 18년까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72~73% 수준임. 실질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55~64세를 제외할 경우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57.8%~62.6% 수준으로 떨어져 노동력 부족²⁾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연령에 근접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축소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전소득 의존이 심화, 이로 인해 고령자가 수혜를 많이 받는 연금, 보건 및 복지 관련 부문에서 정부지출이 증대

- 은퇴로 인한 경제활동가능 인구수의 감소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악화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조세부담³⁾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풍족하지 못한 자산 등 노후대비 부족으로 고령빈곤층으로 전락 가능성**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전체 평균보다 약 10%가 많은 3억 1,063억 원으로 미국(약 80만 달러), 일본(약 5,556만 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음
-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비중이 7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유사시 현금 확보여력이 떨어져 질병이나 기타 위급 상황에 취약
- 연금소득대체율⁴⁾은 42.1%로 OECD 평균인 68.4%에 비해 턱없이 낮고, 노후생활 자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퇴직연금도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소득 하락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잔존

▶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시장영향력 증가**

- 다양한 대중문화의 유입과 진화, 경제·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뉴시니어(New Senior)⁵⁾는 이전 시니어층과는 상이한 문화·사회적 배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시장에서 뉴 시니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어 뉴 시니어는 '틈새시장'이 아닌 '주력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0년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가계금융 항목에서 50대 가구의 자산총액⁶⁾이 가장 크며, 전 가구 중 소비지출 비중은 22.5%로 추산
- 롯데백화점 매출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9%에서 2010년 21%로 증가하였고, 구매액은 37%로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최근 1970년대 통기타 문화 아이콘인 '세시봉'이 브랜드화 되고 뉴시니어의 추억을 자극하는 에릭 클랩튼(2011년 2월), 산타나(2011년 3월), 이글스(2011년 3월) 등의 거장들 내한공연이 성행하는 등 뉴 시니어의 문화향수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문화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음

2)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이 이루어지면서 제조업 분야의 숙련 노동력 부족현상인 '2007년 문제'가 발생, 사회적 이슈화 되었으며 이러한 '썰물은퇴'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 현대경제연구원(2009)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간에 해당하는 9년 동안 부족한 세수 액을 7조 7,210억 원으로 산출함. 산출근거는 2009년 현재, 1인당 조세부담액인 467만원에 베이비붐 은퇴기간 동안 부족한 경제활동 가능인구 1,653,539명을 곱한 값임

4) 연금소득을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서 100에 가까울수록 은퇴 전과 다름없는 수준의 생활이 유지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5) 베이비붐 세대는 여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종전 시니어 세대와는 구별되는 '뉴시니어(New Senior)'로 지칭

6) 가구자산 총액에서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은 제외함(통계청, 2010가계금융조사)

Chapter 2

전라북도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특성⁷⁾

1. 베이비붐 세대의 도시 집중 : 농촌의 피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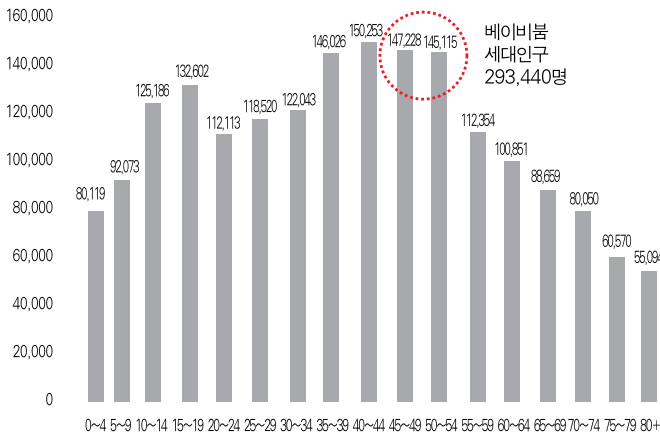
▶ 전북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293,440명으로 이 가운데 83%가 중소도시에 집중

- 각 시군별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지를 살펴보면, 전주 101,715명 (35%), 익산 50,366명 (17%), 군산 45,538(15%)명 등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 총인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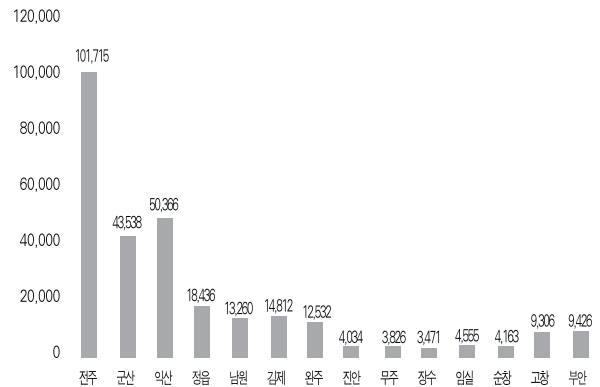
293,440명의 약 67%가 세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으며 이외에 정읍, 남원, 김제시의 거주자를 합하면 전체 83%가 도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개 시 지역을 제외한 군부의 농촌지역 베이비붐 세대는 1%~4%정도만 거주. 학력수준이 높고 경제적 여유로 대표되는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적어 농촌 활력저하와 빈곤심화로 농촌의 피폐화가 예상됨

〈그림 2〉 전라북도 베이붐 세대 현황



〈그림 3〉 지역별 베이비붐 세대 인구수



7)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 자료는 한국고령자패널(2차, 2008년)에서 실시한 원자료를 분석에 맞게 재가공한 것임. 한국고령자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준고령자 10,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단자료로, 이중 전라북도 준고령자 수는 485명임. 고령자패널은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표본으로 45세 이상 중고령노인의 소득 및 소비, 건강을 주요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지역간 중고령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한 자료임.

2. 높은 학력수준과 자녀부양 부담 가중

▶ **전북 베이비붐 세대, 자가소유자 87.1%, 대졸자 17.1%로 높은 자가소유와 고학력**

▶ 전북 베이비붐 세대 중 대졸이상의 학력자는 17.1%로 10명중 2명이 고학력 계층.

▶ 전북 베이비붐세대의 아파트 거주자 비율은 51.4%, 자가소유자의 비율은 87.1%로 자산가치로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녀수는 전북이 2.26명으로 대도시 지역 베이비붐 세대 평균자녀보다 많아 부양가족에 대한 높은 경제적 지출요인 발생.

- 전북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녀수는 2.26명으로 전국 베이비붐세대 평균 자녀수 2.03명보다도 0.23p 높음.

- 부양자녀수가 많을 경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출요인 발생이 많아 자신에 대한 노후대책 부실 우려

〈표 1〉 베이비붐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지역	세대수	가구원수	거주형태 ¹⁾	점유형태 ²⁾	자녀수	학력(대졸자)
서울	2.00	3.67	47.3	68.2	1.96명	25.0
부산	1.86	3.44	40.6	74.7	2.01명	11.8
대구	1.97	3.46	51.7	73.7	1.97명	23.7
인천	1.94	3.41	49.4	74.1	1.73명	11.8
광주	2.00	3.77	58.7	72.8	2.36명	28.3
대전	1.72	3.25	61.5	81.7	1.92명	25.7
울산	1.84	3.27	53.1	66.7	1.83명	8.6
경기	1.98	3.48	54.6	78.0	1.89명	22.0
강원	1.70	3.10	51.1	71.6	2.10명	17.0
충북	2.00	3.53	47.1	91.4	2.33명	14.3
충남	1.84	3.31	43.3	89.7	2.18명	16.5
전북	1.87	3.31	51.4	87.1	2.26명	17.1
전남	1.66	2.95	36.4	72.7	2.41명	17.0
경북	1.70	3.07	40.0	80.9	2.09명	15.7
경남	2.01	3.50	43.8	86.3	2.13명	14.4
평균	1.90	3.42	48.9	77.0	2.03명	19.2

1) 거주형태 : 아파트 거주자의 비율 2)점유형태 : 자가가구의 비율

자료 : 한국고령자패널(2008) 원자료 분석

3. 베이비붐 세대의 두 얼굴, 경제적 풍요와 빈곤

▶ **전북 베이비붐 세대 연평균 가구총소득 3,480만원으로 풍요롭지만, 절반이상은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 소홀.**

▶ 전북 베이비붐세대 중 근로활동 참여자의 비율은 73.9%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보다도 약 20%가량 높은 편.

▶ 높은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총소득이 3,482만원으로 전북 중산층 가구(중위소득 50이상

- ~150%미만)의 평균소득인 2,815만원보다도 600만원 정도 높음.
-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풍요는 준고령계층 대상 여가와 문화활동 소비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소득은 저소득 빈곤노인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후대책은 소홀
- 베이비붐 세대 전반의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57.1%가 기본적인 노후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미가입
-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투자도 매월 평균 12만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1/5를 지출.

〈표 2〉 베이비붐세대의 소득과 소비

지역	월평균건강보험료 (만원)	근로활동	월평균 근로임금 (만원)	월평균 사업소득 (만원)	가구 총소득 (만원)	월평균 생활비 (만원)	월평균 식비 (만원)	사교 육비 (만원)	월평균 저축액 (만원)	금융 기관 대출(만원)	평균 용돈 (만원)
서울	7.12	65.2	224.4	234.1	4286.18	244.33	61.08	30.38	45.86	8216.36	20.76
부산	6.44	73.5	170.6	188.7	3227.37	185.78	53.67	12.13	32.60	2933.94	17.16
대구	6.34	67.8	183.3	178.7	3297.55	174.10	49.94	14.14	42.47	4660.87	18.09
인천	5.72	71.8	167.3	141.50	3362.82	215.57	43.61	13.54	31.70	4366.49	20.76
광주	7.44	70.7	212.5	246.0	4183.00	192.95	37.70	17.20	36.39	3905.77	23.73
대전	7.92	67.0	231.5	274.1	3832.66	192.22	46.04	14.65	52.64	1675.00	29.35
울산	8.74	70.4	235.5	266.6	3912.83	199.77	51.21	15.57	54.85	3388.57	21.73
경기	7.21	67.4	216.5	272.2	4056.21	231.45	54.65	21.79	47.84	4501.29	21.77
강원	5.66	71.6	190.1	251.9	4920.40	216.67	42.67	16.95	47.84	6287.40	18.82
충북	6.46	72.9	244.1	310.0	3564.00	191.04	45.63	13.13	37.08	1290.00	30.90
충남	6.61	67.0	194.1	259.4	3378.97	166.88	45.00	16.38	36.09	3400.00	24.02
전북	4.55	71.4	183.0	252.6	3482.27	146.44	33.00	12.48	47.76	5861.16	18.91
전남	3.17	73.9	174.0	172.3	3018.44	162.15	34.32	9.20	37.17	4700.68	19.91
경북	5.19	79.1	204.1	194.6	3219.08	184.82	44.46	17.38	24.13	4570.73	16.15
경남	7.09	77.1	180.8	207.0	3298.56	201.24	56.93	8.18	35.94	6501.61	18.16
평균	6.61	70.3	203.5	228.7	3749.51	203.36	49.83	17.51	41.40	5081.09	2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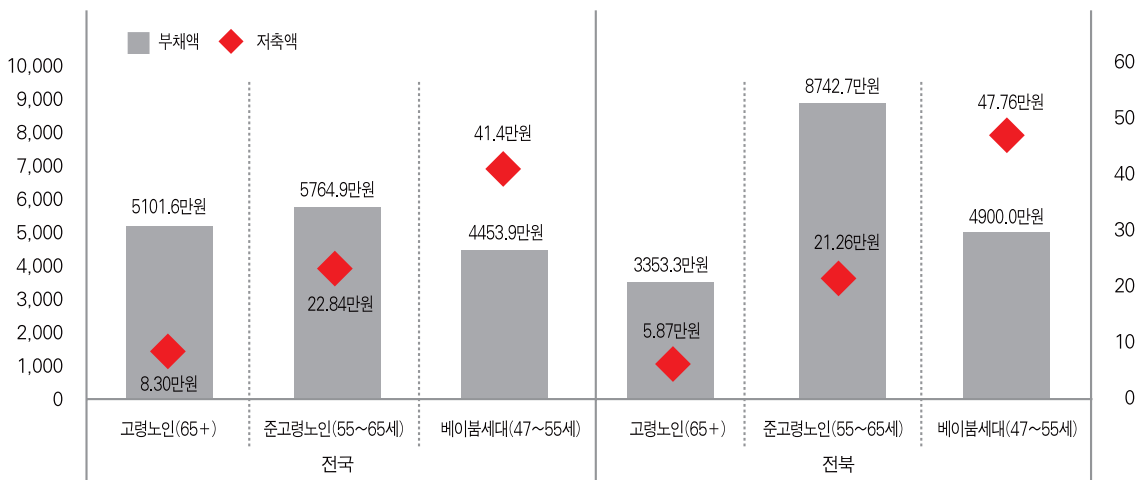
근로활동 : 현재 취업자 비율
 자료 : 한국고령자패널(2008) 원자료 분석

➡ 베이비붐 세대 저축은 많고 부채는 적어

- 전북 베이비붐 세대 월평균 저축액은 47.76만원으로 고령노인 5.87만원, 준고령노인 21.26만원에 비해 높고, 부채액은 평균 4,900만원으로 준고령노인 8,742만원에 비해 낮음.

-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저축과 낮은 부채는 은퇴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은 고령친화산업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그림 4〉 베이비붐세대 평균 부채액과 월평균 저축액



자료 : 한국고령자패널(2008) 원자료 분석

4. 여가문화 활동과 자기투자에 적극적

➡ 전북 베이비붐 세대, 높은 여가활동 참여와 자기투자

- ➡ 전북 베이비붐 세대의 연평균 여행관광 횟수는 2.43회, 공연관람 0.46회, 취미활동 2.14회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노인의 연평균 여행관광 횟수인 0.71회보다도 높게 나타남.

- ➡ 높은 여가문화 활동 참여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가 연평균 여행경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44만원에 이르고 있음.

- ➡ 높은 여가문화 활동 참여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노인대상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과 여가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

〈표 3〉 베이비붐세대의 여가문화 활동 정도와 투자

지역	여행관광	공연관람	취미활동 참여	자원봉사 활동	여행비용 지출(만원)	공연관람 지출(만원)	취미활동 지출(만원)
서울	.86회	.60회	.62회	.55회	74.21	4.84	5.47
부산	.80회	.42회	.49회	.24회	28.08	3.67	2.50
대구	1.39회	1.35회	.49회	1.58회	38.00	8.00	7.29
인천	2.27회	1.56회	.64회	1.81회	67.33	11.52	2.25
광주	1.53회	.85회	.15회	2.28회	92.86	4.88	.50
대전	1.49회	.69회	.06회	.12회	126.95	10.92	3.50
울산	1.05회	.48회	.54회	.10회	51.71	7.50	3.50
경기	1.36회	.95회	.50회	.52회	74.19	6.27	2.83
강원	3.41회	.41회	.28회	4.67회	101.55	4.30	13.00
충북	1.17회	.26회	.06회	.00회	78.15	6.86	2.50
충남	.91회	.27회	.41회	.04회	114.87	7.82	3.00
전북	2.43회	.46회	2.14회	.83회	44.11	3.75	1.00
전남	1.61회	.99회	1.00회	.40회	55.07	6.71	1.40
경북	1.13회	.37회	.21회	.42회	46.58	6.64	6.00
경남	.63회	.37회	.58회	.35회	35.86	6.18	3.00
평균	1.32회	.69회	.52회	.79회	69.39	6.54	4.21

자료 : 한국고령자패널(2008) 원자료 분석

5. 성별 · 지역간 노후준비 양극화

▶ 농촌 · 여성 베이비붐 세대, 도시 · 남성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노후준비에 소홀

▶ 전북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이상인 57.1%는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은퇴 후 노후대책이 부실한 위험노인으로 추정.

▶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도 평균 27만 5천원으로 현 베이비붐 세대의 월평균 생활비인 146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

▶ 전북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 노후준비에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 뚜렷.

- 성별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 남성 49만원, 여성 22만원으로 남성이 여성의 두 배 이상 연금수령 예상

- 도농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대도시인 동부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68만원인 반면, 농촌지역의 읍면부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39만원으로 대도시에 비해 농촌의 연금수령예상액이 절반정도 낮음.

▶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위험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대책이 부실할 경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베이비붐세대와 빈곤한 베이비붐 세대간의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새로운 사회문제의 출현가능성이 있음.

〈표 4〉 연금가입자의 비율 및 예상수급액

지역	월평균 건강 보험료(만원)	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예상수급액 (만원)					소속감(증산층)
			전체	남성	여성	동부(도시)	읍면부(농촌)	
서울	7.12	35.6	34.80	38.03	19.17	31.50	-	655
부산	6.44	42.0	36.32	40.82	20.82	37.38	-	582
대구	6.34	34.2	58.23	48.80	45.59	49.69	-	636
인천	5.72	35.3	22.38	23.88	23.27	24.31	-	576
광주	7.44	40.2	65.07	73.93	55.14	68.93	-	565
대전	7.92	44.4	62.88	74.60	49.14	67.83	-	679
울산	8.74	43.2	47.03	55.79	31.25	52.85	-	679
경기	7.21	41.9	32.75	34.07	24.85	-	8.65	639
강원	5.66	29.9	12.32	23.59	11.94	-	39.71	739
충북	6.46	45.7	73.84	71.56	48.00	-	11.87	786
충남	6.61	54.6	39.85	44.80	36.22	-	37.07	670
전북	4.55	42.9	27.50	49.40	12.40	-	15.53	657
전남	3.17	47.7	27.43	23.12	22.50	-	14.92	614
경북	5.19	37.4	41.52	48.97	32.95	-	31.81	600
경남	7.09	34.2	34.46	37.59	23.40	-	36.00	595
평균	6.61	40.0	39.31	43.74	28.10	-	27.00	639

자료 : 한국고령자패널(2008) 원자료 분석

Chapter 3

전라북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대응 방향

1.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정책결합

▶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

- 전북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은 도시화, 고학력, 높은 여가 문화 활동 참여, 경제적 풍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하지만, 현행 전북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저소득 취약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노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부족.

- 전북 노인복지정책의 정책수혜대상 : 노인복지예산 2천 5백억 중, 빈곤노인이 80.8%, 취약노인이 11.6% 수혜, 일반노인의 수혜율은 7.5%에 불과.

- 전반적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출현은 기존 저소득 빈곤노인 중심의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 요구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이들이 고령화 인구에 포함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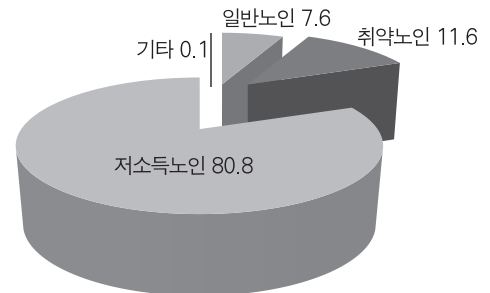
는 2020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표 5〉 노인수혜 대상별 복지정책 수혜 비율

(단위 : 백만원, %)

수혜자유형	사업내용	예산액	비율
일반노인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노인사회참여 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 총 13개 사업	19,137	7.5
취약노인	노인생활시설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요양보호사 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등 8개 사업	29,478	11.6
저소득노인	기초노령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	204,761	80.8
기타	화장장 시설 확충 등 3개 사업	195	0.1
전체		253,571	100.0



자료 : 2011년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서

2. 농촌사회 안전망 확충

▶ 농지연금제도 등 농촌사회의 생활안전망과 복지인프라 구축

- 전북 베이비붐 세대가 지닌 특성중 하나인 도농간의 노후 준비에 대한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농지연금제도⁸⁾와 같은 농촌 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임.
- 준고령자 노후대책에 일환인 주택연금제도는 대도시의 아파트 등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의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고령농업인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주택연금 및 농지 연금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소유의 주택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임.
- 현재 농촌복지의 정책 방향은 도시수준의 복지인프라 확

충으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개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22%에서 50% 수준으로 연차적 확대와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해짐

- 농촌사회 사회안전망의 또 다른 축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를 지역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여 농촌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3.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 전수 위한 사업 확대

▶ 전문직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준고령자일자리 확대

-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현재 65세 이상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55~64세의 준고령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미흡한 편임

8) 농지연금제도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 제도,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며 연금액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됨.

- 정부의 현재 50세 이상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한국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지원, 알선해 주고 있음. 특히 조기 은퇴하는 준고령자들의 다년간 축적된 숙련기

술과 노하우 등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자원이므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중소기업으로 전이하는 중견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의 확대는 필요함

〈표 6〉 한국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대상	기관	설치 수	일자리
50세 이상	고령자 인재은행	36개	- 가정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 종사원
50세 이상	중견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	2개	- 정부 기관 4급, 공공기관 과장급, 상장기업 과장급, 금융기관 과장급, 3년 재직자 등
55세 이상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15개	- 경비, 주차관리, 물품배달원, 운전 등

자료 : 노동부, 09년 고령자 및 중견 전문 인력 취업지원 서비스 기관 확충 (2009)

- 정부는 노인복지법 상의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립형보다는 단기적이고 사회참여 중심의 소극적인 일자리 중심임
- 현행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령층을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연령층을 확대함과 동시에 준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공과 시장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음

〈표 7〉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단위 : 백만원)

참여자격	유형	지원 금액	일자리 수	총예산액
-65세이상 신체노동 가능한 자	-공공(공익, 교육, 복지) -민간(인력파견, 시장,창업모델)	-공익 : 20만원 7개월 -파견인력형 : 10~15만원 -시장형 : 130만원 -창업모델형 : 사업단위 차등지원	186,000	136,6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10)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4. 여가인프라와 서비스 향상: 여가와 교육, 복지의 연계

🔴 고령자의 여가와 생활을 연속성 있게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문화, 여가,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의 고령자를 위한 여가인프라와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도 저소득 계층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 자원봉사, 일, 배움 등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충실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 여가와 교육, 복지를 연계한 고령자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학습과 여가와 생활이 연속성 있게 순환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학습과 교류가 결합한 자기계발형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증가와 시니어간 교류를 위한 고령자向 프로그램 활성화

【사례】 주거와 학습을 결합한 노인복지형 주택사업

▷UBRC(University Retirement Community)는 주거와 대학의 평생교육을 결합한 미국의 시니어용 주택사업임

- UBRC는 시니어가 대학이 운영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직접 강사로 활약하는 등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미국은 고령화로 인해 대학의 학생 수가 감소하자 대학의 줄어드는 수입을 충당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UBRC를 활용함

【사례】 “더 클래식 500”

- 2010년 문을 연 “더 클래식 500”은 대학과 연계한 학습프로그램으로 건강, 미용, 스포츠, 재테크 등의 강좌와 동호회 활동을 통한 교류를 지원하는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 주택임

【사례】 미국의 Beacon Hill Village

- 고령자의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 공동체로 식료품 쇼핑등의 단순한 서비스 지원에서 문화프로그램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5.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농촌과 여성노인 중점지원


▶ 미가입자의 가입확대와 미불입자에 대한 지원 및 노후 설계프로그램 강화

-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원의 역할을 하지만 분석결과, 전라북도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이 넘는 57.1%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비의 1/5에도 못 미치는 등 노후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있어서는 남성(49만원)과

여성(22만원)사이에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최소 24만원, 최대 68만원)와 농촌(최소 8만원, 최대 39만원)사이에 현저한 차가 발생하고 있어 농촌지역과 여성은 노후대책의 사각지대로 드러남

- 따라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가입자의 가입확대와 미불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등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체계가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농촌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함
- 전라북도 베이비붐 세대의 자가소유 비율은 87.1%로 충북(89.7%)과 충남(87.1%)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산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금융자산

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현금유동성은 불량한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고령자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금융자산, 연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형태로 노후설계를 유도하도록 은퇴 전부터 자산형성 및 운용에 대한 교육⁹⁾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9) 중·고령자의 설문조사에서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할 때, 회사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고령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공공에서 자산형성 및 운용에 대한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서울시정발전연구원 정책리포트 제80호 (2011), “초고령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I)”)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